

1. 쌀

< 요약 >

- 현재 전국의 모내기는 정상(98.5%)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일부지역에서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전체 재배면적의 0.4%로 미미한 수준
 - 전국적인 모내기 진행은 전년보다 다소 빠른 상황이며, 가뭄으로 일부 이모작 지역의 전작 수확이 빨라짐에 따라 이앙이 앞당겨졌기 때문
 - 경기, 강원, 충북은 100% 완료, 충남은 99.6%, 전남은 98.6% 수준
 - 정부 및 지자체, 관계기관의 급수대책 추진으로 용수부족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산 쌀 수확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은 문제가 없으나, 모내기 완료 후 7월에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발아불량과 잎이 시들고 마르며, 이삭 형성 지연 및 유효이삭 수 감소로 이어져 쌀 단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모내기 완료 후 용수부족이 지속될 경우 단수 감소요인 존재하므로 가뭄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 급수대책 지속 추진 등 중점관리 필요
 - 가뭄이 지속되어 벼가 고사가 될 경우 조생종으로 재이앙 추진
- 2012년 6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62,824원/kg으로 1월 이후 약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확기 가격대비 2% 하락
 - 산지유통업체와 농가 재고량 증가로 2012양곡연도 시장공급 가능 물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향후 쌀 가격은 현시세의 약보합세 지속 전망

□ 모내기 진행상황

- 6월 2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98.5% 완료되어 모내기 진행은 순조로운 상황

- 경기, 강원, 충북은 100% 완료, 충남은 99.6%, 전남은 98.6% 수준
- * 전국적인 모내기 진행은 전년보다 다소 빠른 상황이며, 가뭄으로 일부 이모작 지역의 전작 수확이 빨라짐에 따라 이앙이 앞당겨졌기 때문

<도별 모내기 실적(6. 21. 기준)>

단위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00.0	100.0	100.0	99.6	97.4	98.6	96.7	97.9	98.5

자료: 전국 도청, 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 도별 가뭄영향

- 전국: 6월 21일 기준 용수부족 면적은 2,956ha(모내기 실시 논: 1,954ha, 미실시 논: 1,002ha)로 모내기 목표면적의 0.4% 수준
 - 충남지역은 가뭄지속으로 용수부족 면적이 타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급수대책 추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지역은 모내기 진행에 문제가 없고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 면적도 미미한 수준
- 강원: 모내기 완료, 가뭄피해 없음
 -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 및 용수부족 문제 없음.
- 경기: 모내기 완료, 용수부족 면적 224ha
 - 모내기는 완료되었으며, 최근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한 면적이 224ha로 집계되었으나, 목표면적대비 0.2% 수준
- 경남: 모내기 98% 진행, 용수부족 면적 없음
 - 6월 14~15일, 18~19일에 걸쳐 30~35mm의 비가 내려 가뭄이 거의 해결된 상황
 - 아직 모내기가 진행되지 않은 면적은 이모작이 대부분으로 양파와 밀 수확이 늦어지기 때문이며 6월 말까지는 모내기 완료 예상
- 경북: 모내기 97% 진행, 용수부족 면적은 10ha
 - 모내기 미실시 면적은 대부분 고령, 성주, 의성으로 주로 마늘, 양파, 감자 후작이며 늦어도 6월 30일까지 모내기 완료 예상

- 용수부족 면적은 10ha로 대부분 천수답으로, 목표면적대비 0.01%에 불과하여 현재 가뭄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는 상황

○ 전남: 모내기 99% 진행, 용수부족 면적은 297ha

- 모내기가 완료된 면적은 용수 부족 문제가 없으며, 6월 19일 평균 15~16mm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도움.
- 이모작을 제외하면, 모내기 미 실시 면적 중 용수가 부족한 면적은 297ha로 목표면적대비 0.2% 수준이며, 양수대책 추진으로 현재까지 심각한 상황 없음.

○ 전북: 모내기 97% 진행, 용수부족 면적은 58ha

- 모내기 실시 면적 중 용수부족 면적은 3ha에 불과
- 모내기 미 실시 면적 중 용수부족 면적은 대부분 천수답으로 55ha이며, 밀 수확이 끝나면 모내기는 문제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충남: 모내기 99% 이상 진행, 용수부족 면적은 2,367ha

- 가뭄지속으로 용수부족 면적은 2,367ha(모내기 실시 논: 1,727ha, 미 실시 논: 640ha)로 목표면적대비 1.5% 수준
- 특히, 홍성, 태안, 서산 지역의 용수부족 면적이 각각 599ha, 564ha, 311ha로 충남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
- 정부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급수대책 추진 중

○ 충북: 모내기 완료, 용수부족 면적 없음

- 6월 셋째 주 이후 국지성 호우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물마름 현상을 비롯한 용수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도별 용수부족 면적(6. 21. 기준)>

단위 : ha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목표면적(A)	91,478	36,851	44,682	155,157	132,678	180,000	114,963	81,788	837,597
용수 부족 면적									
모 내 기 실시 논	224	-	-	1,727	3	-	-	-	1,954
모 내 기 못한 논	-	-	-	640	55	297	10	-	1,002
소계(B)	224	-	-	2,367	58	297	10	-	2,956
B/A(%)	0.24	-	-	1.53	0.04	0.17	0.01	-	0.35

자료: 전국 도청, 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 가뭄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일부(충남)지역은 모내기 실시 면적 중 용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적인 모내기는 정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5~6월 가뭄으로 현재까지 벼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
-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은 문제가 없으나, 모내기 완료 후 7월에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발아불량과 잎이 시들고 마르며, 이삭형성 지연 및 유효이삭 수 감소로 이어져 쌀 단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벼 생육단계별 가뭄피해 양상

- 발 아 기 : 발아불량
- 출아기(직파재배) : 발아 및 출아지연 · 불량, 유아생장 억제
- 묘 대 기 :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활 착 기 : 활착 지연 · 불량,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분 열 기 : 새끼치기 지연 · 감소,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유수형성기 : 유수분화 지연, 지경 및 영화수 감소,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감수분열기 : 불임 유발,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출수개화기 : 출수 및 개화지연, 불임유발, 백수발생,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등 숙 기 : 등숙지연 · 불량, 입중 및 미질저하,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자료: 농촌진흥청

□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 현재까지 전국적인 모내기 지연 및 가뭄피해는 미미한 상황이며, 금년 재배의향면적도 증가하여 2012년산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
- 2012. 5.4~5.11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2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7만 2천 ha로 전년대비 2.1%(1만 8천 ha) 증가

- 쌀의 경우 등숙기인 8월 하순부터 9월까지의 일조시간이 수확량의 75%를 결정하므로 등숙기 기상여건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밭아 및 출아 지연 등이 발생하면 2012년산 쌀 수확량 감소 가능성 존재

<참고자료>

<충청남도 모내기 현황 및 가뭄 영향(6. 21. 기준)>

구 분	모내기(ha)			가뭄대책이 필요한 논(ha)		
	목 표	실 적	%	소 계	미이양논	이양논
홍성군	9,974	9,936	99.6	599	38	561
태안군	9,936	9,600	96.6	564	336	228
서산시	20,567	20,469	99.5	311	98	213
청양군	6,064	6,061	99.9	172	3	169
공주시	8,632	8,602	99.7	150	30	120
예산군	11,959	11,931	99.8	148	28	120
부여군	10,367	10,339	99.7	128	28	100
아산시	11,137	11,112	99.8	98	25	73
당진시	21,561	21,539	99.9	94	9	85
천안시	6,787	6,773	99.8	44	14	30
보령시	9,303	9,270	99.6	36	20	16
서천군	10,584	10,582	99.9	12	2	10
논산시	12,866	12,845	99.8	8	8	
연기군	3,450	3,449	100.0	3	1	2
계룡시	271	271	100.0	-	-	
금산군	1,699	1,693	99.6	-	-	
계	155,157	154,472	99.6	2,367	640	1,727

자료: 충청남도 도청.

<과거 가뭄피해 발생과 논벼 단수>

	가뭄피해 면적 (천 ha)	논벼단수(kg/10a)		
		당해연도	과거 3년 평균	증감률(%)
1982	54	438	386	13.5
1992	18	461	456	1.2
1994	64	459	442	3.9

주: 1만 ha 이상 가뭄피해 면적이 발생했던 연도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통계청

2. 엽근채소

< 요약 >

- 배추는 호남과 충북 일부지역에서 고온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봄배추 단수는 평년보다 다소 좋은 수준으로 6월 중순 대부분 출하 마무리되고, 고랭지배추는 가뭄 및 고온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나, 7월 이후 기상여건이 관건.
- 노지봄무 주산지인 전북, 충남 지역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여 단수는 평년보다 다소 감소 전망되나, 7월 하순 이후 출하되는 고랭지무 초기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감자는 구 비대기인 5~6월 가뭄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하나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고랭지 감자는 적기에 파종되었고, 초기 생육도 양호하여 생산량은 평년 수준 전망
- 양배추는 주산지인 충남지역 가뭄에도 관수 시설 완비로 가뭄피해 적으나, 강원 고랭지지역에서 일부 생육이 지연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
- 당근은 영남 지역이 주산지로 봄당근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뭄피해 미미하고, 전체 출하량도 평년 수준 전망

배추

□ 노지봄배추 가뭄 피해 미미, 고온으로 일부 생육 부진

- 가뭄이 심한 충남지역은 대부분 4~5월 출하가 완료된 시설봄배추 주산지로 가뭄 피해 미미
- 노지봄배추 주산지 중 호남, 충북지역 일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배추통이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육 장애 발생
 - 평년 4,271kg/10a → '12년 4,451kg/10a

- 중부지역 노지봄배추 출하는 6월 중순 마무리 되었고,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지역에서 6월 하순까지 출하예정

□ 고랭지배추 가뭄 및 고온 영향은 미미한 수준

- 5~6월 정식기인 준고랭지 및 고랭지배추 피해는 미미한 수준
- 출하기 이후 준고랭지 1기작 배추는 고온으로 일부 병해 발생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 금년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23% 감소하나 작년보다는 7% 증가한 15만 5천 톤 수준

- 재배면적: 4,507ha, 작년보다 4%, 평년보다 19% 감소
 - 여름철 김치수입량 증가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추세
- 단수: 3,431kg/10a, 작년보다 11% 증가하나 평년보다 4% 감소
 - 정식 후 생육 초기 단계로 생육양호하나, 기상이 관건

□ 배추 7~8월 출하량 작년보다 6% 증가, 평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여 가격은 평년보다 높으나 작년보다 낮을 전망

- 봄배추와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저장량 작년과 평년보다 크게 증가
- 저장량을 감안할 경우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향후 배추 수급에 영향 적을 전망

무

□ 노지봄무 주산지 가뭄으로 작황 다소 부진

- 주산지인 전북(고창, 부안), 충남(태안, 서산, 당진, 예산), 경기(평택) 등에서 노지봄무 생육기인 5~6월 가뭄과 고온 영향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여 단

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4% 감소

☐ 고랭지무 초기 생육 양호

- 일부 지역에서 파종시기 5일 내외 지연되었고 발아율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면적 재파종되고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초기 생육 상황은 양호한 편임.

☐ 노지봄무 생산량 25만 톤으로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13%, 3% 감소

-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7% 감소, 평년대비 1% 증가
- 단수는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7%, 4% 감소

☐ 고랭지무 생산량 8만 1천 톤으로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15%, 18% 증가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6%, 18% 증가 전망
- 단수는 현재 작황 양호로 평년 수준 가정
 - 농촌진흥청 고랭지 무 생육상황 조사(6.16) 결과, 평당 주수, 초장 및 엽수는 평년 수준이며 현재 생육은 대체로 양호

☐ 7월 출하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적으나 8월 이후 평년보다 증가 전망

- 7월 이후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 출하량 변화 가능성
 - 7월은 봄무와 준고랭지무가 혼재 출하되고 8월은 고랭지무가 본격 출하되어 출하량은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변화

감자

☐ 구 비대기인 5~6월 가뭄으로 평년보다 작황 부진

- 전국에서 재배되는 노지봄감자는 봄철 가뭄으로 구 크기가 작아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 18% 감소한 2,201kg/10a
- 특히, 가뭄이 심한 충남지역의 경우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28% 감소한 1,965kg/10a

□ 파종기인 고랭지 감자 가뭄영향은 미미

- 4~5월 파종기인 강원지역 고랭지감자는 적기에 파종되었고, 초기생육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뭄피해는 미미한 수준

□ 봄감자 생산량 39만 8천톤으로 작년보다 13%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 3% 증가할 전망

- 작황이 다소 부진하나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25% 증가(작년대비 5% 감소)하여 전체생산량 39만 8천톤 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 9천톤 수준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6%, 4% 증가 전망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3,845ha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10% 증가
- 단수는 3,362kg/10a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작년보다 34% 증가한 로 평년수준 전망

□ 7~8월 출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봄감자와 고랭지감자가 혼재 출하되는 7~8월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평년수준 전망

양배추

❑ 충남 일부 지역 가뭄피해 발생

- 봄양배추 주산지인 충남(서산, 당진)지역 가뭄에도 관수 시설 완비로 타 작목에 비하여 가뭄 피해는 적으나 일부 관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생육이 부진하여 충남 전체 작황은 평년보다 다소 부진하고 작황이 좋았던 작년보다는 감소
- 일부 강원 준고랭지와 고랭지 지역 가뭄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 발생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평년 작황을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74,000톤 수준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크게 증가 전망

❑ 7월 출하량은 노지봄양배추와 준고랭지 출하면적 감소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8월 이후 출하면적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당근

❑ 봄당근 주산지는 영남으로 가뭄 영향 미미

- 7~8월에 출하될 영남지역 저장 봄당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평년 수준 전망

3. 양념채소

< 요약 >

- **고추**는 현재 생육단계로 비닐멀칭 재배로 인해 다소의 가뭄피해가 있지만 생육 상황이 양호해 수확량 영향 적음. 향후 태풍, 강우, 병충해 발생이 금년산 고추 수확에 중요
 - 작년산 고추가 출하되는 7월까지 건고추 가격 약보합세 지속 전망
 - 8월 이후 가격은 6월 하순 이후 기상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고추 재배면적이 44,600ha로 작년대비 5% 증가해 향후 기상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작년보다 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
- **마늘**은 난지형의 경우 현재 수확 이후 입고 시기이어서 가뭄 피해 거의 없는 반면, 한지형은 5~6월이 구비대기로 충남 등 가뭄에 따른 단수 감소 예상(충남은 전체 재배면적의 5%).
 - 충남의 5~6월 강수량이 전년보다 90% 적어, 구비대가 불량하여 단수는 작년 대비 10% 내외 감소 전망
 - 한지형 마늘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가뭄 피해가 적음.
 - 마늘 예상단수가 8% 내외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18%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9% 내외 증가한 32만 톤 내외 전망
 - 수입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이 전년보다 많아 올해 연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양파**는 5~6월 햇물 수확이후 출하 및 저온창고 입고 단계로 조생종의 가뭄 피해는 없으나, 중만생종은 다소 피해
 -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89%) 주산지인 전남(50%), 경남(24%), 경북(13%)의 추가적인 가뭄 피해 발생
 - 중만생종 단수: 전년 대비 △13%(5.20 조사) → △19% 내외(6.20 조사)
 - 충남의 가뭄 피해가 가장 심각하나 전체 재배면적의 3%이어서 전체 수확량에는 영향이 적음.

- 가뭄에 따른 추가 피해(가뭄 이전 107만 5천톤 내외)로 중만생종 생산량은 100만톤 내외 전망

· 생산량 증감: 전년 대비 $\Delta 26\%$ 내외, 평년 대비 $\Delta 12\%$ 내외 전망

- 금년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8% 감소한데다, 단수도 나빠 7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으나, 가격 호조로 농가의 직접 출하 비중이 늘면서 전월과는 비슷할 전망

○ **대파**는 봄에 정식하여 7~8월 상순에 출하하는 직형의 단수가 5~6월 가뭄으로 인해 피해 발생

- 가뭄이 심한 경기, 충청 중 하우스 대파(전체 출하면적의 40%)는 관수시설로 피해는 크지 않으나, 노지 대파(전체 출하면적의 60%)는 생육지연과 병충해 발생으로 피해 발생

- 7~8월 상순의 대파 출하량 작년 동기보다 3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주산지인 경기(이천, 여주, 포천), 충청(아산), 전북(완주)의 노지대파가 가뭄 피해로 7~8월 단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15% 감소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7~8월 상순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건고추

□ 5~6월 건고추는 정식 이후 생육 단계

○ 고추 생육특성 상 건조 조건에 강하고, 비닐멀칭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음.

- 정식이 시작되는 4월에는 강수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99% 많아 토양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비닐멀칭 작업을 하였음.

- 따라서 비닐멀칭으로 토양 수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에는 영향 적을 듯

○ 가뭄으로 인해 역병, 탄저병 발생은 거의 없고, 진딧물, 총채벌레가 있으나 수확량에는 영향이 적게 미칠 듯

□ 초장, 포기당 착과수 등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

- 전국 평균 생육상황은 키가 전년과 평년보다 2.4~2.6cm 큰 64.9cm, 포기당 착과수도 0.5~0.6개 많은 5.3개로 양호한 편임.

□ 2012년산 건고추 수확량은 6월 하순 이후 기상이 중요

- 6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태풍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됨.
 - 현재 가뭄으로 인한 2012년산 전체 수확량에는 영향이 적으나, 향후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탄저병이 발생하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됨.

□ 7월까지 전년산 건고추 출하로 가격 변동 없을 듯

- 7월까지 가격은 전년산 건고추 출하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햇건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가격은 6월 하순 이후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마늘

□ 5~6월 난지형 마늘은 수확 후 저장 입고, 한지형은 구비대기 및 수확기

- 난지형 마늘은 가뭄 피해 적으나, 한지형은 피해 발생
 - 난지형: 현재 수확 이후 입고 시기이어서 가뭄 피해 거의 없음.
 - 한지형: 5~6월은 구비대기로 가뭄에 따른 단수 감소 예상

□ 2012년산 마늘의 가뭄 피해는 적어

- 난지형 마늘은 대부분 6월 중순 이전에 수확 완료하여 가뭄피해 거의 없음.
 - 난지형 마늘(전체 재배면적의 78%): 주산지인 전남(32%), 경남(20%), 제주

(11%)가 6월 중순 수확이 완료되어 가뭄 피해는 거의 없음.

○ 한지형 마늘은 충남을 위주로 피해 발생

- 한지형 마늘(전체 재배면적의 23%): 주산지는 경북(9%), 충남(5%), 충북(3%)이며, 최대 주산지인 경북의 가뭄 피해는 적으나, 충남은 최근 수확이 시작되어 피해 발생됨.
- 충남의 5~6월 강수량이 전년보다 90% 적어, 구비대가 불량하여 단수는 작년 대비 10% 내외 감소 전망

□ 2012년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내외 증가할 전망

○ 2012년산 마늘 전체 예상 단수 전년 대비 8% 내외 감소

- 충남의 한지형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크나, 전체 단수에는 영향을 적게 미침.
- 올해 초 냉해 및 고온으로 2012년산 마늘의 예상 단수는 전년 대비 8% 내외 감소한 1,142kg/10a으로 조사됨.

○ 따라서 2012년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내외 증가

- 201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산보다 18% 증가한 28,278ha
- 예상단수가 8% 내외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18%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9% 내외 증가한 32만 톤 내외 전망

□ 2012년산 공급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

○ 수입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이 전년보다 많아 올해 연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

양파

□ 5~6월은 햇물 수확이후 출하 및 저온창고 입고 단계

○ 조생종의 가뭄 피해는 거의 없으나, 중만생종은 다소 피해

- 조생종: 5월 중순에 수확 후 출하되어 가뭄 피해 없음.
- 중만생종: 중생종은 6월 상순에 수확 완료된 이후 출하 및 저온창고에 입고되어 가뭄 피해가 적으나, 만생종은 6월 하순에 수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가뭄 피해 다소 발생

□ 중만생종 양파는 가뭄으로 인해 추가 피해 발생

- 2012년산 양파 작황은 작년 정식기(10~11월) 고온과 2월 한파, 4~5월 고온으로 작년보다 나쁜 상황
- 조생종 양파는 5월 중순 이전에 수확 완료
 - 조생종(전체 재배면적의 11%): 5월 중순에 완료되어 가뭄 피해 없음.
- 만생종 양파 위주로 가뭄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89%): 주산지인 전남(50%), 경남(24%), 경북(13%)의 추가적인 가뭄 피해 발생
 - 중만생종 단수: 전년 대비 $\Delta 13\%$ (5.20 조사) $\rightarrow \Delta 19\%$ 내외(6.20 조사)
 - 충남의 가뭄 피해가 가장 심각하나 전체 재배면적의 3%이어서 전체 수확량에는 영향을 적게 미침.

□ 중만생 생산량 가뭄 이전 대비 7만 5천톤 내외 감소

- 2012년산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산보다 8% 감소한 18,690ha
- 가뭄에 따른 추가 피해로 중만생종 생산량은 (가뭄 이전 107만 5천톤 내외) 100만톤 내외 전망
 - 중만생종 생산량 증감: 전년 대비 $\Delta 26\%$ 내외, 평년 대비 $\Delta 12\%$ 내외 전망

□ 7월 양파가격 6월 하순 대비 보험세 전망

- 금년산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단수도 나빠 생산량 감소로 7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으나, 가격 호조로 농가의 직접 출하 비중이 늘면서 전월

과는 비슷할 전망

- 또한 가뭄과 고온으로 품위간 편차가 심해지면서 상·중품간 가격 격차는 전년보다 심화될 전망

□ 현재 저온 창고 입고시기이어서 건조한 날씨 필요

- 현재 수확 이후 창고 입고를 위한 건조시기이어서 6월 하순에는 비가 적어야 함.

대 파

□ 봄에 정식한 대파의 생육 단계

- 7~8월 상순에 출하되는 대파 단수는 가뭄으로 인해 피해 발생
 - 5~6월은 7~8월 상순에 출하되는 대파의 생육기로, 정식(3~4월) 이후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고, 병충해로 단수가 감소함.
 - 가뭄이 심한 경기, 충청 중 하우스 대파(전체 출하면적의 40%)는 관수시설로 피해는 크지 않으나, 노지 대파(전체 출하면적의 60%)는 피해 발생

□ 5~6월 가뭄으로 인한 경기, 충청의 작황 피해 발생

- 봄 정식(3~4월) 이후 가뭄으로 생육 부진과 병충해 발생
 - 경기, 충청의 하우스대파는 관수시설로 작황이 양호하나, 노지는 생육 지연과 병충해 발생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보다 더 나빠짐.

□ 7~8월 상순 대파 출하량 작년 동기보다 크게 적을 듯

- 7~8월 상순의 대파 출하량 작년 동기보다 30% 내외 적을 전망
 - 7~8월 상순의 대파 출하면적은 전년 가격이 낮아 전년보다 17% 감소
 - 주산지인 경기(이천, 여주, 포천), 충청(아산), 전북(완주)의 노지대파의 가뭄

피해로, 7~8월 단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5% 감소 전망

○ 따라서 7~8월 상순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 8월 중순 이후 대파 출하량 회복될 듯

○ 8월 중순 이후 출하량 전년 동기보다 많을 전망

- 주산지인 강원 고랭지대파 출하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아, 8월 중순이후 대파 출하량은 전년보다 많아 가격은 전년과 전월보다 낮아질 전망

4. 과채

< 요약 >

- 오이·애호박·토마토·수박·참외 등의 과채류는 대부분 관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는 미미
- 고온에 의한 병충해 발생 우려가 있으나 밤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습도가 낮은 등 병충해가 확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아 병충해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음.
 - 향후 장기간의 고온 지속, 장기간 강우에 의한 일조 부족과 높은 습도 등의 여건에 의해 병충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음.
- 조숙에 의한 상품성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확이 앞당겨짐에 따라 7월 출하량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7월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오이, 애호박

■ 현재 오이의 주 출하지역은 강원, 충청 일대이며, 정식지역은 강원(노지 백다다기), 충청(취청 2기작, 여름 노지)

- 백다다기오이 6, 7월 주 출하지역은 충남 천안, 강원 춘천, 홍천지역이며 정식지역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노지오이가 정식되는 시기임.
- 취청오이 6, 7월 주 출하지역은 전남 구례, 충북 진천, 강원 화천이며 전남 구례는 출하 비중이 감소하고 강원 화천의 출하가 증가하고 있음. 정식은 충남 천안, 진천, 강원 화천에서 2기작 및 여름 노지오이가 정식되는 시기임.

■ 주산지를 중심으로 병해충 발생 적고 작황 양호한 상태

○ 백다다기오이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재 작황 양호

- 천안: 봄에 정식된 백다다기가 출하 종료를 앞두고 있음. 고온기로 접어들면서 생리장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예년과 비슷한 생육 상황으로 작황상태 양호
- 춘천: 출하가 종료되는 시점이며 작황상태 양호
- 홍천: 출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작년대비 출하량 증가. 병해충 발생은 적고 작황 상태 양호

○ 취청오이 진천, 화천지역 작황 양호

- 진천: 곰팡이 등 병해충 발생이 적고 전반적인 작황이 작년보다 양호
- 화천: 7월 출하 주산지이며, 생육 상황이 작년보다 양호

□ 애호박의 출하지역은 충북, 경남, 강원지역이고, 정식은 충청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

- 애호박 6월 주 출하지역은 충북 청원, 경남 진주이며 진주는 출하비중이 감소하고, 7월은 강원 화천,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 지역 일대에서 출하가 많음.
- 정식지역은 충북 청원, 음성, 충남 부여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정식되는 시기임.
- 현재 주로 출하되고 있는 청원, 화천, 춘천지역의 병해충 발생이 적고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양호. 겨울작형인 진주지역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음.

□ 가뭄에 의한 오이, 호박 피해는 관수시설 완비로 인해 미미

- 시설오이, 호박은 관수시설 완비로 가뭄에 의한 피해 미미
- 강원지역 고랭지를 중심으로 출하되는 노지오이, 호박 재배 또한 관수시설 완비로 가뭄에 의한 피해 미미

- 일사량 및 일조시간이 많아 오이, 호박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충북 청원은 최근 고온으로 인한 흑성병 발병이 있지만 전체 물량에는 큰 영향이 없음.

□ 최근 기상에 의한 공급 및 가격 전망

- 오이: 충청, 강원지역의 신규시설 및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현재 작황상태가 양호하여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 증가 전망
- 애호박: 현재 출하가 많은 충북 청원, 충남 부여에서 신규시설재배가 증가하고,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 출하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겨울작형인 경남 진주에서는 출하 종료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오이, 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7월 초 장마가 지속된다면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토마토

□ 일반토마토 출하지역은 강원지역이며 방울토마토는 충청지역

- 일반토마토 6월 주 출하지역은 강원 춘천, 충청지역 일부이며, 7월은 춘천, 철원, 횡성을 중심으로 출하가 많음. 정식은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지에서 정식되는 시기임.
- 방울토마토 6, 7월 주 출하지역은 충남 부여, 서천이며 정식은 전북 익산, 충남 부여 등 호남,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정식되는 시기임.

□ 풍부한 일조량으로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출하량 확대

- 5~6월 일조량이 풍부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고온으로 과실 숙성 기간이 단축되어 6월 출하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확대
- 수확시기가 앞당겨져 7월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관수시설 확보로 가뭄피해가 적으나 고온성 병충해 발생

- 관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는 미미
-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열매가 충분히 커지기 전에 익는 현상이 발생하고 크기가 작은 과의 비중이 증가
- 철원지역은 고온과 수분공급 부족으로 배꼽썩음병이 발생하여 생산량 3% 감소 예상

□ 최근 기상에 의한 공급 및 가격 전망

- 5~6월 충분한 일조량으로 생육이 양호하여 토마토의 6월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확대 전망
- 일반토마토는 도매시장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으며, 방울토마토는 작년과 평년 수준으로 회복
- 6월 하순부터 고온에 의한 조숙으로 비상품과 출하 확대, 조숙으로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7월 강우 및 일조량 수준에 따라 출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 모두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6월 중에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7월부터는 장마에 의해 일조량 감소, 병충해 확산 등이 있을 수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상승 전망

수박

□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지의 출하가 많은 시기

- 수박의 6, 7월 주 출하지역은 전북 고창, 충남 부여,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이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억제작형이 정식되는 시기임.

□ 작년대비 품질 양호

- 현재 출하지역 및 정식지역의 작황상태는 작년대비 더 좋은 수준임.
- 전북 고창, 충남 부여, 충북 진천 등 현재 병해충 발생 적고 맑은 날 지속으로 고품질의 수박이 출하되고 있음.
- 시설재배의 경우 관수시설로 인해 가뭄피해는 미미한 수준임. 노지재배의 70%를 차지하는 전북 고창의 경우 가뭄의 영향이 조금 있으나, 현재 작황상태가 좋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충북 진천지역은 고온으로 인한 응애류 및 진딧물 발생이 있지만, 평년수준과 비슷하여 전체 출하에는 큰 영향 없음.

□ 전북, 충청지역의 가뭄 및 고온피해는 미미한 수준

- 시설재배의 경우 관수시설로 인해 가뭄피해는 미미한 수준임. 노지재배의 70%를 차지하는 전북 고창의 경우 가뭄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현재 작황상태가 좋아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충북 진천지역은 고온으로 인한 응애류 및 진딧물 발생이 있지만, 평년수준과 비슷하여 전체 출하에는 큰 영향 없음.

□ 최근 기상에 의한 공급 및 가격 전망

- 6월 말~7월 초에 출하하는 충북 진천의 출하일이 10~15일 가량 앞당겨짐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충청지역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고 전북 고창에서 면적 확대로 출하량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6월 출하량의 증가로 가격은 하락추세로 이어질 듯하나, 7월의 강

수에 의한 품질 및 소비영향으로 가격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

참외

■ 경북지역 중심으로 작년대비 작황상태 양호

- 참외의 6, 7월 주 출하지역은 경북 성주, 김천 지역임.
- 경북 성주, 김천지역은 흰가루 및 노균병 발생률이 일부 있지만 출하에는 큰 영향이 없고 생육상태가 양호함.

■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뭄 및 고온피해 적어

- 관수시설 완비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생육 마무리 단계이므로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음,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흰가루 및 노균병 발생이 있으나 이는 평년수준과 같음. 따라서 가뭄이나 고온으로 인한 경북지역의 피해정도는 아주 미미함.

■ 최근 기상에 의한 공급 및 가격 전망

- 일조시간 증가에 따른 기상호조로 참외 생육이 좋아 6월 출하량이 증가함.
- 6월, 7월 참외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5. 과일

< 요약 >

- 과수는 관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으나 고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주 지역은 해갈되었고, 다른 지역도 관수 시설을 활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어 가뭄의 피해는 크지 않음.
 - 고온이 지속되면 생리 장애, 병충해 등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고온에 의한 병충해 발생은 작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음.
- 가뭄이 7월초까지 지속되거나, 장마가 지나치게 길면 과수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뭄이 7월초까지 지속되면 수분공급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가 발생하여 생산이 감소할 수 있음.
 -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열과, 당도저하 등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과, 배, 단감 등 품목이 수확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포도, 조생종 복숭아, 만감류가 출하 중

- 사과·배·단감 등은 수확과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착과와 과 비대가 진행되는 시기
- 복숭아는 6월말 현재 경북 경산·영천(천도계)과 경남 창녕·전북 남원·전남 보성(유모계) 등에서 주로 출하
 - 품종별 출하비중은 천도계(신선, 천일, 오월도) 70~80%, 유모계(정만조생, 백미조생, 호정조생) 20~30%임.
- 시설포도는 6월 말 현재 대전광역시, 경북 김천, 충북 영동·옥천, 전북 완주 등에서 주로 출하

- 품종별 출하비중은 거봉 35%, 캠벨얼리 25%, 텔라웨어 15%임.

○ 감귤은 하우스 온주와 만감류가 출하되고 있으나 출하량은 미미한 수준

□ 6월 말 현재 전반적인 생육상황 양호

○ 과수의 경우 관수시설이 구비된 과원이 많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고,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

- 관수시설은 시설포도 95%, 사과 70%, 배 60%, 복숭아 50% 정도임.

- 17~18일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가 내려 가뭄 피해가 일부 완화

○ 일조량이 많아 생육이 양호하고, 습도가 높지 않아 병충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상황

- 고온에 의한 생육 장애가 일부 있으나, 밤 기온이 높지 않아 양호한 생육 상태 유지

□ 5~6월 가뭄피해는 미미하나 고온현상으로 해충 발생 증가

○ 관수가 원활하여 가뭄에 의한 피해는 미미하나 고온에 의한 피해가 일부 발생

- 낮 기온은 높으나 밤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고온에 의한 피해는 제한적인 상황

- 밤에도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 품종에 따라 생리낙과 등이 발생하여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온현상으로 진딧물, 노린재, 나무좀, 응애류, 깍지벌레 등 해충 발생이 작년보다 1~3%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충북 영동·음성 등은 작년에 없었던 갈색여치 발생비율이 10%로 파악

-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병해 발생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낮

지만 배의 경우 흑성병 발생비율이 11%로 작년보다 4%p 높아 비상품과 비율이 증가할 전망

□ 가뭄 등 기상에 의한 공급 전망

○ 현재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

- 제주지역에는 가뭄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에 의한 감귤 피해는 없음.
- 가뭄으로 인해 과 비대가 지연되어 감산요인이 있지만 향후 과 비대에 따라 과일 중량이 늘어나는 증산요인도 있어 생산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기상청에 따르면 6월 말 이후 평년수준의 강우 예보되고 있어 강수량이 회복되면 생산량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사과·배·단감 등은 9월 이후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가뭄으로 인한 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초순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과 크기 및 핵할 등 생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7월 초순까지 가뭄이 지속되면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장마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강우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열과 및 당도 저하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수급 및 가격 전망

○ 6월에는 시설재배 포도·복숭아·감귤류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로 그 수량이 적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출하량이 적어 작은 출하량 변동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수박·참외·토마토 등 과일 대체 품목의 공급이 안정적이면 시설 과일의 가격 변동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6월말부터 노지(비가림) 복숭아와 포도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점진적으로 출하량이 증가

○ 6월 가격 포도는 작년보다 높고, 복숭아는 낮을 것으로 전망

- 6월 텔라웨어 포도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2kg에 1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8% 높아
- 6월 암킹 복숭아 도매가격은 상품 5kg에 1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11% 낮아

○ 7~8월 포도·복숭아 출하 작년보다 2~5% 많을 전망

- 7~8월 포도, 복숭아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많고, 수박·참외 등 대체과일 출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가뭄이나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병충해 등의 확산에 의해 생산이 감소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6. 축산

< 요약 >

- 축산의 경우 여름철 고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나, 고온에 대비한 사양관리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 고온현상이 발생했다 해서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오히려 여름철 축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장마철 과도한 습도 발생임. 우기에 습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각종 질병 발생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
- 이른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건조 기후는 습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축 생산성에 특이사항을 발생시키지 않음. 다만 이른 무더위로 인해 일상적인 여름철 생산성 저하문제가 빨리 나타나고 있을 뿐임.
- 산란계: 5~10% 산란율 저하 현상 일찍 발생
- 젖소: 이른 고온으로 여름철 일반적 현상인 산유량 감소가 조기 발생
- 오리: 이른 고온으로 여름철 일반적 현상인 증체율 하락 경향
- 돼지: 평년 동기보다 일주~10일 정도 출하 지연 현상 발생, 그러나 폐사율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하 마리수에는 영향 없음.
- 육계: 심각한 생산성 저하 또는 폐사 발생 없음(온도보다 습도가 중요)
- 축산은 오히려 공급과잉(계란, 분유, 오리, 돼지) 및 정부 물가관리정책으로 인해 가격 약세가 나타나며 고온현상으로 수급불안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산란계

-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더위가 시작되면서 5~10% 산란율 저하 현상이 일찍 발생

- 여름철 산란율 저하는 일반적 현상이나(계절적으로 항상 발생) 이

른 더위로 평년보다 빨리 발생

- 새롭게 입식된 신계군의 산란피크기(40~50주령 사이) 도달 시점이 더위로 인해 지연되는 현상 발생
- 더운 날씨로 인한 음수량 증가로 계란 크기가 작아지고 중량 저하, 난각이 얇아지고 색깔이 연해지는 현상 발생(여름철 일반적 현상)
- 현재 공급과잉에 의한 계란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른 무더위에 따른 산란율 저하는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낙농

-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유량 감소 현상이 빨리 나타남(여름철 일반적 현상).
- 현재와 같은 고온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착유우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해 3/4분기 산유량이 예상보다 감소 우려
- 가뭄으로 조사료 작물(옥수수 등) 작황이 매우 불량함. 조사료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 및 품질 저하와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착유우 스트레스 외에 산유량 감소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원유 공급과잉과 소비감소로 국산 분유 재고량이 매우 많은 상황임(국산 분유 재고량: '11.12월 1,648톤 → '12.4월 8,495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 5월 중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산유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분유 재고량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산유량 감소 현상과 조사료 작황 부진이 단기간에 수급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오리

-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더위가 시작되면서 증체율 하락 경향 있음.
 - 증체율 하락은 여름철 일반적인 현상으로 평소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안됨.
 - 대부분 농가에서 이동식 송풍기(팬) 등을 이용해 고온에 대처하고 있으며,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에서 큰 문제는 없음.
- 현재 오리 공급과잉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른 무더위에 따른 단기적인 생산성 저하는 문제가 안됨.

돼지

-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더위가 시작되면서 평년 동기보다 일주일~열흘 정도 출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폐사율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하 마리수에는 영향 없음.
 - 여름철 출하지연은 일상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와 열대야가 시작될 경우 수정율 저하와 포유두수 저하 현상은 예상됨(장마철 일반적 현상)
- 출하 마리수 감소가 아닌 출하지연은 돼지고기 공급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5월 하반기부터 적용된 정부 물가관리 정책(브랜드 업체 도매시장 돼지출하 확대)과 수요 위축으로 인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돈가는 약세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이른 무더위가 돈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육계

- 현재의 기상여건에서는 심각한 생산성 저하 또는 폐사 발생 없음.

- 육계 생산성에는 고온보다는 높은 습도가 치명적임.
- 열량지수(기온*습도)가 2,80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생산성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
- 일부 시설환경이 열악한 무창식 계사의 경우에는 환기 어려움 때문에 다른 농가에 비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재의 고온건조한 기상조건은 육계 생산성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음.

한우

- ☐ 고온은 큰 문제가 안되며, 가뭄으로 축사 바닥이 건조해질수록 사육여건은 오히려 좋아짐.
- 장마철과 같이 고온 다습할 경우 축사 바닥 관리에 어려움 발생함.
- 우사의 경우 개방식이기 때문에 고온에 따른 환기문제 발생하지 않음.
- ☐ 현재의 고온건조한 기상조건은 한우 사육에 큰 문제 없음.